

# 서구문학이론의 수용과 한국현대문학비평

- 김현비평에 나타난 상상력과 바슬라르 이론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류재민\*

## I. 서론

###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김현(1942~1990)은 1962년 3월 서울대학교 불문과 재학 당시 『자유문학』 신인 당선 작품 평론 분야에 「나르시스 시론(詩論)」이 발표되면서 등단한 이후, 수많은 평론과 저서를 내며 비평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김현은 대학 시절에 김승옥, 김치수, 최하림 등과 동인지 『산문시대』를 출간하였다. 1966년에는 황동규, 김주연, 정현종과 더불어 시 전문 동인지 『사계』를 출간하였고, 1968년에는 김승옥, 김치수, 이청준 등과 함께 동인지 『68문학』을 출간하였다. 이후 1970년에 김치수, 김병익과 함께 계간지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며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한다. 불문학자이기도 한 그는 『프랑스 비평사』, 『현대 프랑스 문학을 찾아서』, 『폭력의 구조』, 『시칠리아의 암소』 등의 저서를 통해 바슬라르, 르네 지라르, 미셸 푸코 등의 이론을 포함한 서구의 문학이론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김윤식과 함께 『한국문학사』를 공동 저술하였으며,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과 함께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을 공동 저술하였다. 또한 『한국 문학의 위상』을 저술하며 국문학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김현은 비평가로서 동시대인들의 문학 작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4학년

품에 대해 방대하면서도 꼼꼼한 읽기를 통해 활발한 비평 활동을 했다. 그는 1990년 제1회 팔봉비평상을 수상하였고, 그해 6월 마흔 여덟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sup>1)</sup>

이러한 김현의 문학세계는 크게 평론, 연구, 문학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sup> 김현의 비평 활동에 대해 황지우는 “1962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문학은 김현 비평에 의해 축복받았다.”<sup>3)</sup>고 표현하고 있다. 오생근은 “그의 비평이 한국 문학과 한국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설명의 시도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외국 문학과 사상의 연구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한국 문학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혹은 변형의 의지를 반영한 것”<sup>4)</sup>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의 비평활동과 외국 문학과 사상의 연구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에 대한 연구는 평론, 연구, 문학사가 개별적으로 혹은 일부분만 연구된 것이 많으며 상당수가 김현의 비평 자체에만 치우쳐 있다. 김현 문학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연구로는 이명원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명원은 김현이 불문학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만의 개별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김현이 불문학을 통해 서구의 계몽주의, 합리주의적 인식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인식이 낭만주의, 심미주의를 거쳐 자율적 문학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sup>5)</sup> 김형수의 연구는 김현의 비평의식이 독일의 계몽적 합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토대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바슐라르의 현실 부정 의식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김현 문학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부정 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과 바슐라르의 ‘몽상’과 ‘상상력’의 개념이 김현 문학론의 핵심개념

1) 홍종선, 『김현문학전집 16. 자료집』, 문학과 지성사, 1993. pp. 438~461.

2) 이경철, 「문학 발자취 재조명 ‘활발’」, 『김현문학전집 16. 자료집』, 문학과 지성사, 1993. p. 403.

3) 황지우, 「이 세상을 다 읽고 가신 이」, 『김현문학전집 16. 자료집』, 문학과 지성사, 1993. p. 310.

4) 오생근, 「김현 교수의 삶과 작품 세계」, 『김현문학전집 16. 자료집』, 문학과 지성사, 1993. p. 279.

5) 이명원, 『타는 혀』, 새움, 2000.

으로 강조한다. 김형수는 김현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맹신한 결과 고정적 세계관에 함몰되었고, ‘문자’라는 애콜과 만나면서 권력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는 문학비평에 존재에 대한 김현의 본질적인 물음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고 말한다.<sup>6)</sup> 권성우는 김현 비평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그 변모양상을 살피고 있다. 그는 김현의 세대론적 전략과 더불어 프랑스 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김현 비평의 바탕이 되었다고 말한다. 권성우는 김현의 비평이 70년대 ‘타자의 현상학’을, 80년대 ‘공감의 비평’을 화두로 ‘분석적 해체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7)</sup> 과광수는 김현의 바슬라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김현의 바슬라르 연구가 일정 수준의 성과도 있지만, 많은 오독으로 인해 바슬라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지 못하고 ‘인상적 점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현의 비평이 인상주의적 작품 해석의 성격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 비평 이론에 대해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sup>8)</sup>

위와 같이 기존의 김현 비평에 대한 연구들은 김현의 프랑스 문학에 대한 이해가 비평 활동에 있어서 큰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김현 비평과 프랑스 문학이론의 상관성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크게 평론, 연구, 문학사로 이루어지는 김현의 문학 세계와 프랑스 문학의 상관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현의 문학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그가 프랑스 문학의 이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현 비평과 프랑스 문학이론의 상관성을 검토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 김현 비평에 나타나는 ‘상상력’과 바슬라르의 이론의 상관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김현의 비평은 ‘상상력’을 매개로 바슬라르의 이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

6) 김형수, 『김현 문학비평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논문, 2003.

7) 권성우, 「4·19 세대 비평의 성과와 한계」, 『문학과 사회』, 2000 여름호.

8) 과광수, 「외국문학 연구와 텍스트 읽기 – 김현의 바슬라르 연구성과에 대하여」, 『문예중앙』, 1992 겨울호.

는다. 바슬라르는 인간의 ‘상상력’을 중시하며, ‘인간의 상상력은 그 자체의 고유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캉킬랩을 거쳐 푸코에게 영향을 끼쳤다. 김현 역시도 바슬라르의 ‘상상력’ 이론을 그의 비평에 핵심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현 비평에 나타나는 ‘상상력’과 바슬라르의 이론에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김현의 비평에 대한 이론적 추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슬라르의 이론이 김현의 비평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피며 이를 통해 김현 비평을 조망하는 한 가지 시선을 얻고자 한다.

## 2. 연구의 시각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김현 비평 연구에 있어 현 단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김현의 문학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그가 ‘바슬라르’로 대표되는 프랑스 문학의 이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본고는 김현 문학의 전반적인 시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II장에서 김현이 이를 위해서 김현의 비평 활동에 대해 시대적인 구분을 해보고 변모 양상을 살펴 어떤 과정으로 외국 문학 이론 주목 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 문학 이론 수용 과정에서 김현이 외국문학도로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김현의 문학관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주목하며 외국 문학 이론 수용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연구자로서 김현 연구에 나타난 바슬라르 이론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통해 김현이 바슬라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알아보자 한다. 또한 바슬라르 연구가 뒤에서 언급할 실제 그의 비평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김현 비평에서 바슬라르 이론에 영향을 받은 상상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바슬라르에 대한 김현의 관심은 1966년 『불의 정신분석』을 읽으면서부터 74~75년의 프랑스 유학시절을 거쳐 『바슬라르 연구』이 출간되는 1976년까지 집약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비평 속에서 김현이 상상력을 어떻게 비평 활동에 접목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김춘수, 고은, 정현종에 대한 김

현의 비평을 살펴볼 것이다.

## II. 외국 문학 이론 수용과 바슬라르

### 1. 김현 비평의 변모양상

김현의 문학 세계는 서구 문학 이론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앞서 김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존재와 언어』에 실린 글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만남이라는 주제이다.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라는 주제는 인간에 대한 학문, 특히 프로이트, 역사학, 현대 사회학과 구조언어학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점차로 뒤바뀐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상상적 저작물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64년에서 67년에 이르는 사이, 아는 시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표현한 언어를 약간 형식주의적인 삶의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그러나, 68년 이후부터 글에는 사회와의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이미지보다는 원초적인 투기(投企), 삶에 대한 태도가 더욱 탐구의 대상이 된다.<sup>9)</sup>

첫 시론집 『존재와 언어』가 발간된 이후,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김현은 비평의 시선을 김춘수의 「꽃」에서 존재와 언어에 대한 치열한 사유를 발견해내듯이<sup>10)</sup> 실존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다가 바슬라르를 접하면서 김현의 비평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는 김현 스스로가 밝혀두고 있다. 김현은 1962년 바슬라르의 『물과 꿈』을 처음 접했지만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김현이 자신의 번역서 『불의 정신분석』<sup>11)</sup>에서 밝히고 있듯이, 1966년에 바슬라르의 『불의 정신분석』을 처음 읽으면서 그는 바슬

9) 김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 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3, p. 10.

10) 위의 책, p. 176.

11) 가스통 바슬라르, 김현 역, 『불의 정신분석』, 삼중당, 1977.

라르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1974~1975년에 걸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유학하여 바슐라르 연구를 해서 「행복의 시학」이라는 논문을 내고, 1977~1978년 2년에 걸쳐 『불의 정신분석』과 『몽상의 시학』<sup>12)</sup>을 번역한 것으로 확인 될 수 있다.

내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국에서도 그 편린 을 볼 수 있게 된 소비 사회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와 쥬다노프나 루카치류의 우직한 반영론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시키면서이다. (...) 예술이 사회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예술이 반영한다는 사회한 무엇인가? 그가 속한 사회를 부정하는 예술이나, 그가 속한 사회에 무관심한 것 같은 예술 역시 어떤 의미로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그런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하다가 나는 바슐라르 와 프랑크푸르트 학파, 특히 아도르노의 예술 이론과 부딪쳤다.<sup>13)</sup>

김현은 바슐라르와 더불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도 수용했다. 이는 김현이 한국의 산업사회에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아도르노를 접한다. 아도르노의 미학사상은 김현의 문학관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김현은 아도르노의 수용을 통해 한국의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했을 것이다. 문학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산업社会의 허상을 파헤쳐야 하며, 그 허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문학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김현은 아도르노를 통해 깨친 것이다. 문학은 억압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억압받는 현실에 대해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현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이를 통해 김현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그에게 문학은 공리성과 오락성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순수/참여’ 논쟁을 넘어 문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2) 가스통 바슐라르, 김현 역, 『몽상의 시학』, 홍성사, 1978.

13) 김현, 「바리에테」, 『현대비평의 양상 — 김현문학전집 11』, 문학과 지성사, 1993. p. 140.

문학은 동시에 불가능성에 대한 싸움이다.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봉상 속에 잠겨들 수 있다. 봉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봉상은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학은 그런 봉상의 소산이다. 문학은 인간의 실현될 수 없는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낸다. 그 거리야말로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불가능한 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삶은 비천하고 추하다. 그것을 깨닫는 불행한 의식이야말로 18세기 이후의 문학을 특징짓는 큰 요소이다.<sup>14)</sup>

김현은 문학이 억압하는 사회 밖에 위치하여 자유로운 상상력으로서 현실의 모순을 포착함으로써 그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학은 봉상의 소산이다.”라는 김현의 생각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도르노 이후 김현은 1980년대 들어 지라르, 푸코의 이론을 받아들이며 비평적 관심을 옮기며 폭력의 기원과 속죄양의 의미를 찾아내고, 권력의 구조와 합리주의의 한계를 밝혀낸다. 하지만 이때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슐라르의 이론이 김현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작용한다. 봉상은 억압하지 않고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 2. 외국 문학 이론 수용의 의의

김현의 비평은 항상 ‘나’로부터 출발한다. 김현의 비평 속의 ‘나’는 비평의 주체로서 김현의 내면을 읽어낼 수 있게 한다. 김현은 비평의 주어로서 자신을 제시한 것이다. 김현은 초기 한국 문학에 대해 외국 문학에 비해 별로 우수한 것을 산출해내지 못했다는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었다.<sup>15)</sup> 그는 한국 문학의 지지분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sup>16)</sup> 이는 서구적 보편성을 준

14)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문학 사회학 — 김현문학전집 1』, 문학과 지성사, 1993, p. 52.

15)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문학 사회학 — 김현문학전집 1』, 문학과 지성사, 1993, p. 94.

16) 김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 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3,

거로 하여 한국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러한 김현의 의식과정 속에서 프랑스 문학은 중요한 원천이었고, 우리 문학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대상이었다. 정파리의 지적대로 그는 한국에서의 근대성의 탄생을, 언어에서는 한글의 승리, 이념에서는 유교, 불교 이데올로기의 극복, 사회 제도에서는 부르주아 시민 사회의 성립으로 파악했다.<sup>17)</sup>

새로운 이념형을 무턱대고 세우려 하는 것보다는, 새 이념형의 설정이 새것 콤플렉스의 소산이라는 것, 문화 담당층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탓에 혼란이 계속된다는 것, 그 새 계층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고의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것을 투철히 인식하는 문화의 고고학적 태도가 오히려 사태를 호전시킬 것이다. 의식이 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 혼란을 다른 방법으로 진정시키려 하다가 그것을 더욱 조장시키지 말고, 그 혼란을 의식함으로써 진정시키는 것 이 제일 쉬운 길이 아니겠는가?<sup>18)</sup>

김현은 새로운 것에 들려, 그 새로운 것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새것 콤플렉스’를 경계한다. 그러면서 “새운 것, 외국의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길이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 문학으로 대표되는 서구문학이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한국시는 한국어로 씌어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비평가였던 것이다. 그는 프랑스 문학과 한국 문학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던 비평가였다.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실존주의 등 프랑스 문학의 이론을 새로운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그 속에서 발견해내고자 하였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김현은 보편적 준거로서 ‘개인의식의 형성’을 그의 비평적 활동에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게 된다. 김현은 프랑스 대혁명의 ‘자아의 발견’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으로서의 비평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sup>19)</sup>

---

p. 22.

17) 정파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0 여름호.

18) 김현,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 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3, p. 63.

19) 김현, 『현대 비평의 양상 — 김현문학전집 11』, 문학과 지성사, 1993, p. 284.

문학의 다양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게 저항했는가를 입증한다. 문학은 인간 정신의 자기 전개가 형태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20)</sup>

김현은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며 그를 통해 억압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 3. 김현의 연구에 나타난 바슐라르 이론

바슐라르가 말하는 의식은 주체와 대상의 상호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의식은 주체의 대상에 대한 인식작용의 주된 모티프이고, 대상은 의식에 의해 주체에게 하나의 참조물이 된다. 몽상의 의식은 존재의 아래에, 무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의식,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매개지대를 탐색하는 의식, 끊임없이 시적 몽상을 유발하는 의식, 존재 이전의 상태로부터 나오는 의식을 의미한다. 꿈과 몽상은 어떠한 연속성의 관계도 없다. 꿈과 몽상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정신 현상인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꿈은 무의식 활동에 속하고, 몽상은 의식의 활동에 속한다.

바슐라르는 물·불·공기·흙의 물질성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이 유형화된다는 4원소론을 펼친다.

우리는 상상력의 영역에서 불, 공기, 물, 흙의 어느 원소에 결부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물질 상상력을 분류하는, 4원소의 법칙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시학이 물질 본질에서 그것이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시적 혼을 가장 강력하게 결합시키는 것은 기본적 물질 원소에 의한 분류일 것이다.

하나의 몽상이 하나의 작품에 쓰이는 데 충분한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단순히 덧없는 시간의 휴가가 아니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을 찾아내야만 하며, 어떤 물질 원소가 자신의 실체, 규칙, 또는 특별한 시학

20) 김현, 『현대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 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993, p. 165.

을 몽상에 주어야만 한다.<sup>21)</sup>

바슬라르는 4원소에 해당하는 불, 물, 공기, 대지에게 물질성을 부과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상력의 세계에도 질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문학 이미지들은 개개인의 작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조합되거나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 문학 이미지의 형성에 어느 정도 규칙적인 특성이 내재해 있다. 그는 그 규칙을 발견해내고 어느 정도 체계를 부여한 것이다.

바슬라르가 말하는 상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태적 상상력과 물질적 상상력이다. 형태적 상상력이란, 상상력이 대상의 표면에만 머물다가 비슷한 형태의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경험론에서는 이것만을 상상력 대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쉽게 떠올린다면 회화적 이미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물질적 상상력은 우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고,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형태적 상상력에 비해 한 대상과의 관계가 더 오래도록 유지된다. 문학적 이미지와 실체를 결합시키는 유일한 매개체로 쉽게 생각하면 시적 이미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역동적 상상력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 상상력이 동적인 힘을 얻은 것을 말한다. 물질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의 의지, 욕망은 순수한 욕망이다. 역동적 상상력은 『공기와 꿈』을 통해 잘 드러난다. 공기는 형태성도 물질성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공기에 대한 상상은 상상력 그 자체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바슬라르는 상상력의 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지 이상으로, 생의 비약 이상으로 상상력은 정신의 생산력 그 자체이며, 심리의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몽상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우리의 몽상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다고 본다. 또한 한정된다는 것은, 우리 정신의 궁극적 한계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몽상이라고 역설한다.

---

21) Gaston Bachelard,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0, pp. 9~10.

바슬라르에 따르면, 시란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들에 대한 갈망이다. 그 이미지는 비현실적인 것을 실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상상의 왕국을 여행하도록 인도한다. 무엇보다도, 오브제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현실의 한 훌륭한 인도자이다. 상상력은 우리 존재를 대상에게 투사하는 적극적인 정신 활동이며, 이미 죽은 세계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영혼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니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충위의 세계를 창조하려는 우리 존재의 도약과 그 정신적 활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공기라는 자유롭고 가벼운 이미지를 선별한다.

우리의 언어를 미완의 것으로, 잃어버린 파편의 하나로 여기는 견해가 우리의 존재를 왜곡시켜 왔다. 바슬라르에 따르면,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태고에 잃어버린 근원적 언어로 접근하기 위함도, 어딘가 은폐되어 있는 세계의 총체를 현전해 내기 위함도 아니다.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되찾아야 할 것이 없다. 인간은 창조적 존재인 것이다.

바슬라르에 대한 김현의 연구는 「행복의 상상력」과 「행복의 시학」<sup>22)</sup>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행복의 상상력」과 「행복의 시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복의 상상력」이 바슬라르가 고안한 상상력의 분류 체계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행복의 시학」은 바슬라르 이론에서 ‘상상력’이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그는 바슬라르를 통해 서양 문학 역시 단절과 감싸기를 겪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열등의식을 ‘단절과 감싸기’의 개념으로 극복해내고자 한다.<sup>23)</sup> 여기서 김현이 주목하는 것은 ‘단절’이 아닌 ‘감싸기’의 개념이다. 바슬라르는 과학사는 비연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바슬라르는 ‘감싸기’를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은 여기서 바슬라르의 근본적인 비역사주의적 입장이 결국은 그를 상상력의 철학으로 이끌고 간다고 보았다.<sup>24)</sup> 이러

22) 김현,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 — 김현문학전집 9』, 문학과 지성사, 1993.

23)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문학 사회학 — 김현문학전집 1』, 문학과 지성사, 1993, p. 95.

24) 위의 책, p. 24.

한 바슬라르의 방식은 후에 김현의 한국문학사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김현은 한국문학사에 대해 논하면서 ‘진보’라는 어휘 대신 ‘전개’라는 어휘를 택한다.<sup>25)</sup>

김현은 바슬라르의 이론에서 상상력에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김현은 존재론적 낙관주의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행복의 시학’이라 명명한다. 바슬라르 연구에 관한 두 개의 글 제목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은 이러한 김현의 의식을 반영한다. 상상력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다. 고통스럽고 간난한 시대에서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sup>26)</sup>

또한 김현은 연구를 통해 바슬라르의 원형 개념을 밝히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내가 바슬라르의 원형 개념을 밝혀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i) 바슬라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금세기 문학 연구가 이룩한 성과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점과; ii) 바슬라르의 사상 중에서도 그의 정신분석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사상적 체계를 오해하게 되리라는 점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sup>27)</sup>

김현은 서문에서 이미 바슬라르의 이론 중에서도 정신분석학 쪽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바슬라르의 콤플렉스 원형 개념이 후기의 현상학적 이미지 분석에까지 그 혼적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바슬라르의 정신분석이 프로이트보다는 용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김현의 비평에 나타나는 바슬라르의 영향은 그 자신의 연구보다는 『바슬라르 연구』<sup>28)</sup>의 공저자인 과광수의 연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현은 바슬라르의 이론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바슬라르가 텍스트

25)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문학 사회학 — 김현문학전집 1』, 문학과 지성사, 1993, p. 99.

26) 위의 책, p. 58.

27) 김현,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 — 김현문학전집 9』, 문학과 지성사, 1993. p. 12.

28) 과광수·김현, 『바슬라르 연구』, 민음사, 1976.

를 읽는 태도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현은 바슬라르를 통해 자유로운 텍스트 읽기를 발견한다. 바슬라르의 텍스트 읽기 방법은 정명환의 글에 잘 드러난다.

이 ‘몽상의 몽상가’에게 있어서는, 시적 기호들은 휴식과 어린 시절과 세계의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는 갖가지 환상들이 빛처럼 솟아나는 지점이다. 바슬라르는 텍스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면밀한 읽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거의 없다. 한편의 시조차 전체적 구조와 관련시켜 읽지 않는다. 단 한마디의 말이 그를 우주적 몽상의 길로 접어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한 줄의 시구에서 ‘누이’라는 말을 만나면 만나면 연금술의 소리를 듣는다.” 또한 산문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마치 책이 종국적인 대상인 양 객관적으로 읽을 줄 모르는 독자”이며, “그런 이야기책에서 하도 엄청난 생성을 보기 때문에 나는 휴식을 취 한다. 어떤 한 페이지를 내 것으로 삼아 그것을 몽상할 수 있는 심리적 풍경 속에 머무르면서.” 텍스트에 충실하지 않은 이러한 일탈적인 읽기. 그러나 상상의 지평선을 넓히고 화사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텍스트를 산출하기도 하는 회한한 계기가 되는 이 읽기는 또한 롤랑 바르트를 유혹하기도 하는 것이다.<sup>29)</sup>

김현 역시도 바슬라르의 텍스트 읽기 방법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가 어떤 저자를 인용할 때 그는 그의 사상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개시키기 위해, 그가 인용하고 있는 저자들의 연구가들이 본다면 영터리로 그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마구 끌어들이는 것이다.<sup>30)</sup>

김현 스스로도 고은의 시 비평<sup>31)</sup>이나 정현종의 시 비평<sup>32)</sup>에서 볼 수 있

29) 정명환, 「읽기에 관한 한 비이론적 고찰」, 『문학을 찾아서』, 민음사, 1994, p. 370.

30) 김현, 『김현예술기행/반고비 나그네 길에서 — 김현문학전집 13』, 문학과 지성사, 1993, p. 99.

31) 김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 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3. pp. 251~268.

32) 위의 책, pp. 269~289.

듯이 관련된 하나의 이미지를 ‘여기저기서 뽑아내’거나 ‘되는대로 골라’ 읽어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읽기는 ‘왜곡’이나 ‘오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슬라르도 이러한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김현의 표현들은 그가 자주 쓰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김현이 앞선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가 텍스트를 자신의 취향대로 골라 읽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그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지우의 글<sup>33)</sup>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의 글에서 그가 얼마나 방대하면서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품들을 읽어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은 ‘뛰어난 오역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이러한 ‘오독’ 속에서 새로운 텍스트들이 창조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관점에 의해 실제 비평 속에서 창조적으로 텍스트를 읽어나간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평에 대해 의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현은 김현 특유의 공감의 비평으로 나아간다.

### III. 김현 비평과 상상력

#### 1. 김춘수와 식물적 상상력

김현은 서구의 상징주의 시인들인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발레리 등에게서 ‘바다’라는 이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시인들에게서 쉽게 ‘꽃’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음에 주목한다. 김현은 서구 시인들에게서 ‘바다’의 이미지는 출범, 회귀, 난파, 귀환 등 여러 가지 동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시인들은 ‘꽃’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정적인 이미지를 시적인 오브제로 택하고 있음을 발견한다.<sup>34)</sup> 김현은

33) 황지우, 「이 세상을 다 읽고 가신 이」, 『김현문학전집 16. 자료집』, 문학과 지성사, 1993. p. 310.

34) 김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 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3, p. 65.

실제 자신의 비평 활동에서 정현종, 고은, 김춘수, 김현승, 전봉건 등 많은 시인들에게 바슬라르를 통해 얻은 자신의 상상력 이론을 적용한다. 이때 김현은 「상상력의 두 경향」에서 상상력을 동적인 이미지를 산출하는 능력과 형태적 이미지를 산출하는 상상력으로 나누고 있다.<sup>35)</sup> 동적 이미지를 통해 상상력이 나타나는 경우와 형태적 이미지를 통해 상상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패턴이라고 말하고 있다. 형태적인 이미지는 과거의 어떤 형태와 결합하여 모든 경험이 그 원형으로 귀환하고 과거의 형태를 이룬다. 반면 동적 이미지는 경험의 극점이 형태를 얻고 나타나지 않고, 현재화된 과거가 존재하고, 현재의 위치가 중요시된다. 김현은 형태적 상상력의 시인들로 최하림, 김화영, 이승훈을 꼽고 있다. 그리고 동적인 상상력의 시인들로 이성부, 강호무, 정현종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탐구 행보는 ‘콤플렉스’나 ‘물질적 상상력’ 같은 바슬라르의 여러 이론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춘수의 식물적 상상력에 대한 글은 바슬라르 이론의 적용을 위한 시도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김현은 김춘수 초기 「꽃」 연작들을 존재에 대한 탐구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높게 평가한다. 동시에 김현은 「김춘수와 시적 변용」<sup>37)</sup>에서 김춘수의 시세계의 특성 중 하나로 식물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꼽고 있다. 김현은 식물에 대한 관심을 정신분석학으로 설명하는 대신 바슬라르의 대위법으로 설명하려 한다. 식물은 대지에 뿌리박는다는 것과 창공으로 솟아나는 이중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슬라르가 즐겨 사용한 무거움과 가벼움, 강함과 약함, 억센과 연함 등의 대위법과 같은 것이다. 김현은 김춘수의 시세계를 ‘중용주의’, 혹은 ‘정관주의’라고 지적하며, ‘관조하는 자의 견고한 세계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김춘수의 중용주의는 식물적 상상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식물이라는 이중성 속에서 시인은 어느 한 쪽으로도 철저하게 덤벼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5) 위의 책, p. 83.

36) 「김춘수와 시적변용」, 위의 책, pp. 176~179.

37) 위의 책, pp. 176~207.

뿌리는 바슬라르의 해석을 따르면, 동물적 상상력에서 뱀이 갖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식물적 상상력에서 맡고 있다. 뿌리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촉수이며, 나무를 나무답게 유지하는 지주이다. 그것은 또한 죽음의 탐구를 뜻 하며, 동시에 생명의 흡수를 뜻한다. “대지의 즙을 공중으로 운반하는 뿌리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자(死者)의 집에서 사자를 위해서 일하려는 뿌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뿌리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공개와 대지의 두 방향으로 번져간다”(『대지와 휴식의 몽상』, p. 291). 뿌리에 대한 탐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무의식·욕망 등은 갑작스럽게 바다의 이미지의 도움을 받고 만다.<sup>38)</sup>

여기서도 김현은 바슬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김춘수 시에 대한 비판적 해석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동물적 상상력 대신에 식물적 상상력에 몸을 내맡긴다는 것은 대립·저항·반항으로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의 소산이 아니라, 이해·타협·관용의 정신으로 삶을 살겠다는 태도의 소산이다. 삶의 부조리와 기이성을 식물적 상상력은 바람과 햇빛의 조화라고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수락해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김을 ‘처용’이라는 고대 인물에게 이끌고간 중요한 심적 요소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유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여성적 태도를 낳고, 그것이 식물적 상상력으로 예술적 등가물을 얻는데, 그것이 곧 ‘처용’이라는 인고행(忍苦行)의 보살이다. 그는 식물적 상상력으로 삶의 의미를, 삶이 주는 부조리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처용’을 만난 것이다. 그의 고백은 이렇다: “내가 이 재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윤리적인 데 있었다. 즉 악의 문제·악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날이 갈수록 나에게는 벽차기만 하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조차 섞이 얹어지지 않았다”(『한국문학』, 66년 여름). 그의 윤리적 태도가 쉽게 해결점을 못 발견한 것은 그의 노력이 적었다기보다는, 그 자신도 모르는, 그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패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부끄러움이다. 그 부끄러움은 여성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성(性)에 대한 부끄러움이며, 더 단적으로 말하자면 거세순결 콤플렉스이다.<sup>39)</sup>

이렇듯 김현은 김춘수 비평을 통해 자신이 이해·타협·관용의 형태적인

38) 위의 책, p. 191.

39) 김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 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3, p. 199.

상상력이 아니라 대립·저항·반항의 동적인 상상력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문학이 억압받는 현실에 대해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김현의 문학에 대한 생각과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현이 바슐라르의 ‘역동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김춘수에 대한 비평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뿐만 아니라 ‘콤플렉스’의 개념도 끌어들이고 있다. 바슐라르의 이론을 그의 비평 활동에서 깊숙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현은 시인의 내면세계 깊숙이 다가가려 한다.

## 2. 고은과 누이 콤플렉스

김현은 바슐라르의 이론을 기반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로 나아간다. 김현은 사르트르가 “생이란 작품에 의해서도, 마치 작품 밖에서 그 전체적인 의미가 결정되는 현실에 의해서처럼 개시된다. 말하자면 작품을 산출한 환경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내보이며 그걸 끝내는 예술적 창조 속에서도 말이다. 개인의 객관화로서 작품은 생보다 훨씬 완전하고 훨씬 전체적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작가의 작품 세계, 상상적 세계를 밝힌다는 것은 그 작가 자신을 밝히는 것보다 그 작가를 이해하는 데 더 전체적이고 완전하다고 말한다.<sup>40)</sup> 그러한 방법으로 그는 고은의 상상적 세계에 접근하려 하였다.

김현이 고은에게서 꼽은 정식적 외상은 누이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물론 고은은 실제로 누이가 없었고, 자신의 여성 취향은 김춘수 등의 시편들에게서 추체험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시 속의 누이가 가상의 누이였음을 김현이 나중에 알고 충격을 받는다.<sup>41)</sup> 하지만 김현 비평에서 고은의 접근하는 방법은 그가 이미지를 통해 콤플렉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살펴볼 의의가 있다. 김현 스스로는 사실과 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음을

40) 위의 책, p. 254.

41) 김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 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3, p. 439.

지적하면서, 사실을 뛰어넘어 그의 내적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sup>42)</sup>

김현은 「시인의 상상적 세계」<sup>43)</sup>에서 고은이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바다·병·겨울 등을 꼽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저변에는 누이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김현은 고은의 시 「사치(奢侈)」를 분석하면서 고은의 의식 안쪽 벽을 더듬는다. 시 분석 말미에 김현은 고은의 시적 태도가 “누이의 깊은 부끄러움”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항상 주술적인 면, 누이와 자기와의 관계, 제사장과 사동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은 고은의 시 속에서 누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모여 있던 해변·섬나라·백야·가을벌레 등의 이미지는 ‘어린 시절’과 ‘여자’, ‘죽음’ 등으로 추상화되고, 그 추상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다’의 이미지가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고은은 누이의 죽음이라는 원초적 경험을 통해 소멸과 멸망의 바다에 이른다.: “나는 창조보다도 소멸에 기여한다.” “얼마나 창조보다도 멸망은 찬란한가! 그대들이여 망한 나라를 기억하라.” 고은의 상상적 세계는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동반한 바다, 아무리 애써도 헤어날 길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도 없는 멸망의 바다에서 완결된다. 그 완결의 뒤에는 항상 누이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동반한 누이의 죽음이 있다.<sup>44)</sup>

고은에 대한 김현의 이러한 분석 방법은 바슬라르가 포(E.A. Poe)를 분석하는 것과 같이 바다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다. 바슬라르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물을 포(E.A. Poe)적인 물로 보고 있다. 포의 물은 그림자를 물질적으로 빨아들여 날마다 더 검고 무거워지는 물이자, “우리들 안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에, 나날의 무덤을 제공하는” 물로서 죽음의 물질적인支柱(支柱)이기 때문이다.<sup>45)</sup> 김현이 바라보는 고은의 물 역시 소멸과 멸망의

42) 위의 책, p. 440.

43) 위의 책, pp. 251~268.

44) 위의 책 p. 265.

45) Gaston Bachelard,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0, pp. 81-86.

물이다. 고은의 물도 죽음을 품고 있다. 김현은 김춘수도 바다의 이미지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는 식물적 상상력에서 뿌리에 대한 탐구가 결여되어 나타난 대체물로 보고 있다.<sup>46)</sup> 또한 김현은 김춘수 자신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 알레고리에 그치고 말았다고 본다. 반면 김현은 고은의 물 이미지가 바슬라르의 물에 대한 이미지를 내재화시켰음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김현은 고은의 상상력과 이미지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시인의 무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정신분석의 방법을 시도 하고 있다. 이는 김춘수의 시에 대한 분석이 외적인 형태적인 면에 주목하였다면, 고은의 시에서 바다에 대한 해석은 물질의 내적인 성질적인 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대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현종과 바람의 현상학

김현 비평에서 바슬라르 이론의 적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인으로는 정현종을 꼽을 수 있다. 정현종은 김현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바슬라르의 영향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시인이었다. 그 이유는 정현종이 김현이 바슬라르에게 받아들인 역동적 상상력을 가장 잘 구현한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김춘수의 식물적 상상력이나 고은의 바다에 대한 상상력과는 다른 독특한 이미지이다. 따라서 김현에게 정현종은 중요한 시인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김현은 「바람의 현상학」(1971), 「정현종을 찾아서」(1974), 「변증법적 상상력」(1978), 「술 취한 거지의 시학」(1985) 등을 통해 정현종에 대한 비평문을 남긴다. 이는 정현종에 대한 김현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현은 「바람의 현상학」<sup>47)</sup>에서 정현종의 시집 『사물의 꿈』을 바슬라르의 4원소론 중 공기의 상상력으로 분석한다. 바슬라르에 따르면 공기는 4원소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원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고 운

46) 김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 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3, p. 191.

47) 김현,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 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3, p. 281.

동성이 커서 상상력 또한 자유롭고 무한하게 전개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김현은 정현종의 시가 의식과 물질 사이의 간극을 시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동적인 상상력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sup>48)</sup> 김현은 정현종의 상상력이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상상력의 체계는 ‘낯선 데로 가기’와 ‘올라가기’라는 동적 체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바슬라르에 따르면 공기는 역동적 상상력과 관련된다. 공기적 상상력은 대지적 상상력과 대비를 이룬다. 대지적 상상력이 무겁고, 모든 것을 품는 풍부한 이미지라면, 공기적 상상력은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가벼움을 지녀야 한다. 공기에 관해서는 니체를 고지(高地)콤플렉스의 전형적 인물로 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공중을 나는 꿈〉, 〈날개의 시학〉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기적 상상력의 이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푸른 하늘〉, 〈구름들〉, 〈성운〉을 통해 시적 이미지를 속에 담겨진 공기적 상상력을 본다. 또한 〈공기나무〉를 통해 대지적 이미지 속에 포함된 나무가 지닌 내밀한 역동성을 살펴본다. 〈바람〉에서는 〈난폭한 물〉과 같이 공기의 〈난폭함〉을 살펴보려 하고 있다. 정현종에 시는 이러한 바슬라르의 이론과 잘 부합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김현이 정현종의 시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역시 ‘바람’에 관한 시들이다. 그는 정현종의 40여 편 되는 시편 중에서 열한 편의 시를 골라내며 정현종이 바람에 보편적으로 편재해 있음을 지적한다. 바람에 대한 동적인 상상력은 김춘수를 비롯한 다른 시인들의 형태적인 상상력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다. 또한 김현은 정현종의 바람 이미지가 청각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이미지라는 점을 지적하며 바슬라르의 공기적 상상력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시인의 밖에서 바람이 불 때 그것은 삶의 무미건조함을 극복하려는 정신의 치열함과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시인의 내부에서 바람이 불 때, 그것은 죽음이라는 육체적 조건과 관계를 맺고 있다. 바람은 초월과 죽음의 두 지주를 가

---

48) 위의 책, p. 281.

진 시적 대상이다.<sup>49)</sup>

김현은 김춘수의 식물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바슬라르가 즐겨 사용한 대위법으로 바람의 이중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은 정현종의 바람이 사막과 불의 이미지와 관련시키며, 바람에 대해 삶이 모래가 되게 하는 파괴와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산을 포괄하는 역설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현은 정현종이 단적으로 시어에서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넓히면서 그 거리와 간극을 통해 현실에 대한 방법적 비판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사물을 시인 자신의 감정표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내면 의식에 의해 왜곡시켜 표현하였는데, 정현종은 이와 다르게 자연을 객관화·사물화 시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대답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현은 ‘바람’에 의해 환기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 ‘방법적 사랑’이라는 인식론적 각성을 도출한다고 지적한다. 「변증법적 상상력」<sup>50)</sup>에서 김현은 정현종의 시들이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으로, 가벼운 것은 무거운 것으로 존재하는 ‘변증법적 상상력’이라 부른다. 이 변증법적 상상력을 통해 서로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은 서로 대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부드러움, 따뜻한 차디침 같은 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는 정현종이 뛰어난 시인이 것은 불행을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평한다.<sup>51)</sup> 이것은 정현종이 역동적인 변증법적 상상력을 통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문학적 정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변증법적 상상력은 문학이 억압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억압받는 현실에 대해 일깨울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리성과 더불어 예술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김현의 문학관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은 현실의 고통에 대한 정현종의 이러한 태도를

49) 위의 책, p. 275.

50)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 — 김현문학전집 4권』, 문학과 지성사, 1993.

51) 위의 책, p. 68.

자신의 태도와 일치시키며, 그의 시를 읽는 것이 즐거움이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 V. 결론

지금까지 김현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가 ‘바슬라르’로 대표되는 프랑스 문학의 이론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김현의 비평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현은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며 그를 통해 억압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은 초기 한국 문학에 대해 보편성의 준거를 들어 외국 문학에 비해 별로 열등하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문학을 통해 한국문학을 이해해보고자 했고, 열등의식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현은 문학은 공리성과 오락성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며, 문학은 쓸모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쓸모 있는 몽상의 소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서구 문학 이론을 수용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문학관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그의 문학관은 당시 양분화된 문단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넘어 문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게 된다. 그에게 있어 바슬라르의 이론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는 바슬라르에 나타난 ‘단절과 감싸기’의 개념을 통해 한국문학의 주변성을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낙관성에 이를 수 있었다. 바슬라르의 텍스트 읽기 수용하여 자유로운 텍스트 읽기를 자신의 비평 활동에서 펼쳐나간다. 그리고 바슬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을 적극 수용하여, 비평의 한 축으로 삼는다. 이러한 바슬라르의 수용은 김현의 비평 속에서 일부 시인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현된다. 김춘수의 경우에는 시인의 식물적 상상력을 형태적 이미지를 산출하는 정적인 상상력으로 규정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고은의 경우에는 시인의 바다에 대한 내적인 상상력과 이미지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시인의 무의식을 해명하기 위해 정신분석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의 상상

력 이론은 정현종의 시 비평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는 정현종의 시가 김현이 바슬라르에게 받아들인 역동적 상상력을 가장 잘 구현한 시인이었기 때문이기에 가능했다. 김현은 바슬라르를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행복한 꿈을 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문학관을 지닐 수 있었다. 또한 바슬라르로부터 수용한 ‘역동적 상상력’은 정현종의 작품들을 통해 나타나면서 김현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문학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김현은 비평을 통해 이를 섬세하게 공감의 비평으로 읽어냈다. 김현은 바슬라르로 대표되는 서구 문학 이론을 통해 자신만의 안목을 지니고,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며, 자신이 꾸는 행복한 꿈을 한국문학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 비평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현, 『김현문학전집』 제1권~제16권, 문학과 지성사, 1993.

### 2. 단행본

곽광수·김현, 『바슬라르 연구』, 민음사, 1976.

이명원, 『타는 혀』, 새움, 2000.

### 4. 논문

김형수, 『김현 문학비평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논문, 2003.

황영범, 『김현 문학비평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03.

### 5. 비평

곽광수, 「외국문학 연구와 텍스트 읽기 — 김현의 바슬라르 연구성과에 대하여」,  
『문예중장』, 1992 겨울호.

권성우, 「4·19 세대 비평의 성과와 한계」, 『문학과 사회』, 2000 여름호.

정파리, 「김현 비평의 현재성」,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2000 여름호.

정명환, 「읽기에 관한 한 비이론적 고찰」, 『문학을 찾아서』, 민음사, 1994.

### 6. 번역서

Gaston Bachelard, 김현 역, 『불의 정신분석』, 삼중당, 1977.

Gaston Bachelard, 김현 역, 『몽상의 시학』, 홍성사, 1978.

Gaston Bachelard,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80.